

동방에서 온 박사들

¹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²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³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⁴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⁵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⁶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⁷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⁸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⁹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

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¹⁰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¹¹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¹²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 2:1-12)

주님이 다른 곳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신 까닭은 오직 주님 혼자만 영적이고 천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에 의해 영적 천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능력을 가지고 자연적인 사람으로 태어난다. 주님이 영적이며 천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주님 자신이 당신의 인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은 그 일을 가장 낮은 등차로부터 가장 높은 등차에 이르는 질서에 따라 이루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모든 것과 지옥의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두셨다. (AC.4594:2, 3)

마2:1-12

‘동방에서 온 박사들’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4594번 글 2번, 3번 항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ason why the Lord was born there and not elsewhere, is that he alone was born a spiritual celestial man, but all others natural, with the capacity or ability to become either celestial or spiritual by regeneration from the Lord. The reason why the Lord was born a spiritual celestial man was that he might make his human Divine, and this according to order from the lowest degree to the highest, and might thus dispose into order all things in the heavens and in the hells.

이는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에 관한 주석 중 ‘곧 베들레헴’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님께서는 2천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주님이 오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 데로부터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들을 동방의 박사, 또는 동방의 현자라고 부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그들에게는 고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을 통해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고대교회의 말씀은 모두 상응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응이란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의 모든 것들과 서로 통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은 천국을 나타내고 땅은 교회를 나타낸다거나, 또는 물은 진리를 나타내고 불은 사랑을 나타낸다거나 하는 것이 모두 상응입니다. 따라서 상응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주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대교회 사람들에게 상응의 지식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

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상응의 지식 또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상응의 지식이 남아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아람이라고 불리는 시리아와 앗시리아 지역, 그리고 짐작하기는 동북아시아에 광활한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성(聖) 문서의 어떤 구절들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신앙, 예를 들면 천부경 같은 것을 통해 본다면

※ 천부경(天符經), 대중교의 기본 성전으로 천신(天神)인 한인(환인, 桓因)의 뜻에 따라 한웅(환웅, 桓雄)의 천부인(天符印)을 가지고 백두산 신단수(神檀樹) 아래 강림하여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大業)을 시작한 고사(古事)에서 연유하는 지고(至高)의 천서(天書)로 평가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반도 위쪽의 대륙 어디인가에도 고대교회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경에는 삼위일체와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

시아의 여러 곳에 고대교회가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고대교회의 말씀, 또는 상응의 지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시리아에서 온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발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먼 훗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발람이 그런 예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고대교회의 말씀이 남아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대교회의 말씀이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자들 역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마2:1-12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제 동방의 현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¹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은 주님이 태어나실 당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헤롯왕 때라고 말한 것은 그냥 역사적인 배경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속뜻으로는 당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왕은 속뜻으로 진리를 뜻하고, 반대의 의미로는 거짓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 때라고 한 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 거짓 진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참된 진리이신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헤롯왕에게로 와서 묻습니다.

²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고대교회의 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고대교회의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고대교회의 지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짝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노아의 후손들은 고대교회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그때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고대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의례가 각기 달랐던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로 묶었던 교리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대교회를 관통하는 믿음이요, 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다는 고대교회의 지혜는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질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진리와 선, 사랑과 지혜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와 선을 그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와 선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방의 종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리와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현자들을 인도했던 별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진리의 지식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현자들은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더이상 진리의 계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처음에는 각자가 믿는 종교의 진리를 통해 주님께

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라고 하면 고대교회의 가르침이 남아 있는 이방종교의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방종교의 진리를 가지고는 더이상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즉 선이 있는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순수한 종교라면 이방 종교의 교리 가운데도 진리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계시록 해설 351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빛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 말씀을 통해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데, 그것은 마치 중심에서 그 주변의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 AE(*Apocalypse Explained*, 계시록 해설) 351번 글에 대한 *Age r* 영역 및 *Whitehead*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light of heaven, or the light

마2:1-12

‘동방에서 온 박사들’

in which are the angels of heaven who are from this earth, is from the Lord by means of the Word; from this as from a center light is diffused into the circumferences in every direction, thus to those who are there, who, as was said, are the Gentiles that are outside of our church.

이는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에 관한 주석 중 ‘내가 보매’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말씀이 있는 교회에 제일 먼저 진리의 빛을 내려 보내주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외연을 이루는 수많은 이방 종교에게로 진리의 빛이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소유하는 교회의 진리가 햇빛과 같이 밝은 진리라면, 이방 종교의 진리는 주님의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어둡고 모호한 진

리입니다.

별이 사라지자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진리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자들의 질문은 참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³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현자들은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선한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의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참된 진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헤롯은 타락한 교회를 지배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여기서 소동은 타락한 교회가 새로운 진리의 출현을 예감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새 교회의 진리가 참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진리, 또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일 것입니다.

⁴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⁵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⁶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타락한 교회의 악을 뜻하고요, 서기관은 타락한 교회의 거짓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궁금해하는 것은 그들이 참된 진리의 출현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면 그것이 거짓인 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빛을 통해 진리를 알아보는 직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진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 뿐입니다.

⁷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⁸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본문에서 헤롯왕은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이것은 내적 진리가 없는 교회가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베들레헴은 속뜻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베들레헴은 ‘선이 있는 진리’가 나타나는 곳을 뜻합니다. 선이 있는 진리란, 말 그대로 진리의 바탕에 선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 선의 속성과 진리의 속성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에서

마2:1-12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직접 나오는 신성한 선, 또는 내적 진리를 자연적 진리인 말씀의 문자적인 뜻과 연결하는 진리입니다. 그 선이 있는 진리를 말씀에서는 베냐민,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며, 그리고 선이 있는 진리가 나타나는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부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낳은 것과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모두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인간을 순식간에 천국으로 들어 올리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감각적인 인간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입으신 육신이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라면,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은 문자적인 뜻 안에 담긴 내적 진리인 것입니다. 내적 진리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진리가 문자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인간은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자

의 옷을 입은 내적 진리, 또는 선이 있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선이 없는 진리라면, 내적 진리는 선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발현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9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비록 문자적인 진리이지만 진리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왕은 진리를 뜻하고요,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을 배운 다음에 헤롯의 교회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박사들은 왜 그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내적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내적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 떠나 갑니다. 그때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별이 나타난 것은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진리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자적 지식은 내적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헤롯의 교회로부터 말씀의 문자적 지식을 얻은 다음에야 다시 진리의 계시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별이 나타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10절, 11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¹⁰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¹¹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봤을 때 아기 예수님이 집안에 어머니와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의 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또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은 자연적 진리와 함께 있는 순수한 내적 진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순진무구한 내적 진리를 나타내고요, 어머니는 자연적인 진

리, 즉 문자적인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주님은 각 사람의 선한 의지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의지가 없으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주님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 내적 진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내적 진리이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문자라고 하는 물질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의 생명인 선을 문자적인 뜻과 연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자의 뜻과 내적인 진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내적 진리가 말씀의 문자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문에서는 어머니와 아기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말씀의 다른 곳에서는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표현합니다. 구름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의미하고요, 영광은 그 속에 감추어진 내적 진리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마2:1-12

‘동방에서 온 박사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24:30)

박사들은 주님을 뵈고 엎드려 절한 다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연결고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익한 일이며, 또한 주님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사들은 신실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 무슨 뜻일까요? 황금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요, 유향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이 두 가지 사랑이 자연적 삶 속에 녹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이나 절기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아닐까요? 오늘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¹²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해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타락한 교회의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길이란 기존 교회의 진리가 아니고요, 새로운 교회의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국에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국은 그들의 이웃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국은 이웃

중에도 아주 큰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낮은 차원의 이웃은 친구나 직장 동료, 교회의 교우들 같은 개인들입니다. 그보다 높은 차원의 이웃은 소속된 사회나 공동체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이웃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차원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고국에 돌아갔다는 것은, 새로운 진리에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서는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의미는 ‘선이 있는 진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이 있는 진리이신 주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선이 있는 진리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영적 천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자연적 사람, 즉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도 없고, 진리도 없는 상

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배우면서 그 진리를 통해 세상 욕망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각종 정욕과 물질에 대한 욕망,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든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그토록 힘이 든 것은 우리에게 선은 없고, 진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선을 동반한 진리로서 각 사람에게 오시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동방박사가 갔던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동방박사의 길이란, 첫째는, 주님께서 인류에게 남겨주신 유산인 선하고 진실한 마음, 새 교회에서는 그것을 ‘남은 자’(리메인스 *remains*)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남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지성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하시는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통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그 지혜를

마2:1-12

‘동방에서 온 박사들’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주님께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물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그 두 가지 사랑이 담긴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예물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진리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길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에 따라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오신 주님을 뵈 수가 있으며,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5:2)

아멘

원본

2017-12-24(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2-12-25(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